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마음 닦아서 이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오늘따라 비가 와서 상당히 불편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은 가족 속으로 들어가지진 않으니깐요. 더군다나 날이 춥지 않아서 마음이 좀 푸근합니다. 털 송구스럽구요.

스님네들이 부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머나먼 데서 밤을 새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 걸 생각한다면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바깥놓고 생각을 한다면 '저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어차피 머리를 깎고 출가했을 때는 다 버리고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끝없는 길을 걷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도 행복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부와 자식들과 한 가정을 이루면서도 진짜 수행자가 되겠다고 노력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체 만물만생이 다 이런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갖은 모습으로 갖은 것이 다 돼 보고 나서 사람이 됐던 겁니다. 사람까지 올라와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 헛바퀴처럼 돌아가는 고훘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는지 그것을 몰라야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어떻게 자유인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습을 바꿀 때는 하나도 없이, 실오라기 하나 걸칠 게 없이 다 놓고 갑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재물이나 보물은 방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집이 아무리 좋아도 대문 안에서 인사를 할 것이고, 친척 부부지간이나 아무리 좋은 친구다 할 지라도 동구 바깥에서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은 그림 자처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업식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 고초는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 마시고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차원을 높여서 꼭 진실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조그맣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놓을 때에 우리는 진실한 실천공행이 되도록 이렇게 나아가 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닦는 법이란 먼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바로 끌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끌려놓을 줄을 안다면 끌려놓고서 다시 꼬집어내서 축을 가지고 쥐고 놓칠 못해서 다시 쥐고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지름길입니다. 가정에 어떠한 애교가 닦쳐도 타파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놓고 가는 도리입니다. 지혜롭게 바로 돌려놓는 그 자체 말입니다.

우리가 돌려놓는다 돌려놓는다 하니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고, 일이 닦쳐오는 거는 체가 없는 데서부터 체가 있는 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이 꼬여들어가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일이 벌어져가지고 바로 바깥으로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일든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마음으로 꼬여진 거니까, 마음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상대가 벌어지고 얽혀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잊고저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한 가정에 구정물이 닦쳤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돌려놓는데 맑은 물로 돌려놓는다면 맑은 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마음이 밀가루라면 밀가루만 고집하지 마시고 밀가루가 화해서 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수도 될 수 있고 만두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원자에서 바로 분자로, 인연에 따라서 가공돼서 하나의 만두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집쉬워야 소립니다.

모두가 그냥 어렵다, 아주 괴롭다 이렇게 말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개시해서 바로 실천을 하시는 데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발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마음의 발전이 아니라면 극난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그날 복사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만큼 수억 겁을 거쳐오면서 경험을 했고 그 모든 것이 한 마음 바로 근본, 영원한 근본, 그 근본에 종합해서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입력이 돼서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은 사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부처님 법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에 바로 쓰고 돌아가는 이 진리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판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용도에 따라서 닦쳐오는 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한두 건입니까? 인신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자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천차만별의 애교가 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자기가 지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은 데다가 도로 놓고 끌려놔야 이 소립니다. 한두 건이 아닌 그 유전성,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인과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이 모두가 바로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올 것이고요.

그런데 삼세(三世) 다 통치하고 일심(一心)으로써 실천공행하려고 하고 자유인이 되려고 하고 만물의 영장이 되려고 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고 법신(法身)이 되려고 하고 관세음,地藏 모든 것이 다 자유스럽게 되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흠뻑도 맑은 물로 바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체가 다 한군데서, 한군데서 들고 나는 것이니까 한군데로 놓는 작업만 잘하시고, 끌려놓는 작업만 잘하시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이 투철하다면, 그리고 믿는 것이 투철하다면, 못났든 잘났든

라는 거는, 마음의 근본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리 저리 쳐도 그 마음이라는 것은 떼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광대 무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지마는, 서훈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공부를 해서 자유자재권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나라에 위기가 닦쳐어오, 그때는 참, 지금과 같지 않아서 모두 그 스님을 상당히 귀하게 생각하고 나라에서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에서 아주 특이한 보물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너희 나라를 없애겠다 하니가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서훈보 스님의 자유자재한 능력으로 나라



그림 · 최주현

모두가 그냥 어렵다 괴롭다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해서 실천하는 데에 묘미가 있어

는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이 투철하다면 바로 일체 만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타파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법당에서 예배 올리고 음식물을 놓고 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바로 여러분이 계시니까 거기 그 자리에 부처가 계시는 겁니다. 법당에만 부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시니까 법당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에도 계시는 겁니다. 또 바로 여러분 몸이 도량이고, 몸속에 들은 생명들이 바로 중생들이죠. 그러니 부처가 따로 있습니까, 어디? 그러니 우리 아가도 얘기했지만 밀가루가 마음이라면 그걸로 별의별 거를 다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밀가루라는 근본을 가졌지만은 가공해서 국수도 되고 만두도 되고 부침개도 되고 피자도 되고 술도 되고 누룩도 되고 뭇 벌레 벌레 다 되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나누어져서 다른 이름을 띄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밀가루는 밀가루의 근본이 거기 뚜렷하게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마음이

의 위기도 모면하고, 관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나라의 위기를 모면해 한 그 공로로 받은 아주 많은 상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서 구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는가를 잘 살펴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재권 말입니다. 얼른 쉽게 말하면 일체 만물만생의 대권입니다. 아까 밀가루 얘기 했듯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했죠? 이 마음 하나로 일체 만법을 다스릴 수가 있는 그런 대권이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나 이것저것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리까,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의 그 근원, 그 자체를 쥐고 있는 것은 주먹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이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먹을 볼수록 내뒀었다. 지혜도 없고 없는 데 따라서 이 주먹은 아주 알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훈보 스님이 자기 자유자재권을 그대로 개시(開

示)한 겁니다. 누가 꼭 그렇게 할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게 거니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잘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커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왕지사 말이 났으니 말이지 버스 지나간 뒤에 아무리 버스 보고 여기 앉아서 모두 그 스님을 상당히 귀하게 생각하고 나라에서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에서 아주 특이한 보물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너희 나라를 없애겠다 하니가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서훈보 스님의 자유자재한 능력으로 나라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많이 다니나, 요런 물자는 어느 지점에다 내야 되겠다, 지금 현 사회에서는 어떠한 것이 제일 잘 먹이 들어가나, 어떠한 것을 잘 살고 들어가나 이런 거를 다 살펴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해야지, 그것도 보지 않고 아무 데나 그냥 하거나 하면 되는 줄 알고 돈 주고 뭐 해서 그냥 팔까 망하게 하고 집까지 다 뺏기고, 이런 행동은 없어야 되겠죠. 이것이 모두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한 탓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공부를 하고 다스려나가면 벌써 스스로 구멍이여 빠지지 않게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자동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음공부 하고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기가 마음먹는 데에 따라서 법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믿고 맡기고 그냥 하지 못하고, 믿고 맡겼다고 하면서도 그거를 다시 불안하니깐 끌고 나와서 또 그거를 생각합니다. 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맡겼으면 맡긴 대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려면 믿고 맡겨야 그 걸 받은 사람이 일을 맡았게 총 실행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맡겼다가 다시 뺏고, 또 일을 맡겼다가 다시 뺏고 이러한 일을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깐 맡겼던 걸 도로 뺏아들고 나오지 말라 이 소립니다.

지 않고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그걸로 인해서 온 가정이 다 살 수 있는 건데 그 녹이 슬게 하고 빛 바래고 잘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가정인들 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놔둘 거라면 기름을 발라서 딱 녹 안 슬게 하듯이, 마음도 역시 그렇게 미리미리 이 세상 세파 속에서 살아나기려면 너무나 닦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모두 닦치지 않게 하는 것도 녀박에 없다.' 하고 미리 붓을 박아놓는 거죠. 붓을 박아놔어도 앞서에 붓을 박지 못해서 오는 것은, 오고 난 뒤에 박아도 됩니다, 닦치는 대로. 거기다 자꾸 나쁜 것이 돌아올 때 거기다가 끌려놓는 겁니다. 자꾸 돌려놓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게 좋게 해서 끌려놓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이성계가 꿈을 아주 나쁘게 꾸고도 지혜로운 무학 대사를 찾아가서 그 꿈 얘기를 물었습니다. 무학 대사는 그 꿈 얘기를 듣고서 묵묵히 한참 있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우수수 떨어지는 꿈을 꿔고 그러니 얼마나 언짢습니까? 까마귀가 그냥 울고 가는 꿈을 꿔고, 때문에 허수아비 모기지를 매서 디롱 디롱 매달아놓은 걸 꿔고, 색깔이 갈렸던 것이 그냥 와르르르 떨어져서 깨지는 거를 꿔고 그랬으니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언짢은 꿈인가.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비할 수 없이 언짢은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꾸로 다니고 바로 다니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 다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거꾸로도 되고 때로는 바로도 됩니다. 그러나 품조차, 품이 고장됨이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울고 간 것은 지금으로 치면 철와대에 돌 끼이고, 가옥가옥이니까, 색깔이 와르르 깨진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다는 것이고, 꽃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허수아비가 목을 매서 대문 밖에 디롱디롱 매달린 것은 모든 만민이 쳐다본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꿈 해몽을 해줬던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임금이 되기도 했었던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서 먹여라 하는 것이 잘못된 아닙니다. 물뿐이 아닙니다. 물은 어디에도 들어갑니다. 물 안 들어가는 데 없지요? 일체가 물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요. 인간도 피가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피도 물이니까요. 모두가 이 물 안 들어가는 데가 없듯이 우리 마음 이 자체가 바로 굴러서 놓고 바뀌는 데 의미가 있고 묘미가 있고 아주 지혜로운 실천이 나옵니다. 났으면 진짜로 믿고 도로 뺏아가지고 나오진 마십시오.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누굴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또는 무슨 스님네를 고깃덩어리 믿습니까? 펴 믿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다니는 자기 마음의 주인을 진짜로 믿어야죠. 자기 마음의 주인만이 자기를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거부터 알아야 모든 일체제벌의 마음도 거기에 한 찰나에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정신계, 마음의 아버지가 된단 말입니다. 정신계의 아버지가 되죠. 구차하게 이 모습을 가지고 또 나오지 않고도 말입니다. 마음의 아버지가 돼서, 정신계의 아버지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저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대로 음해하는 그런 법신, 응신, 관세음,地藏, 용신, 지신 뭐 아니되는 게 없이 다 표시면서 그렇게 음해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벗어나길 같은 이 길밖엔 없는데 좌편이나 승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중세계에 저림 살고 있으니까요.

제일 바빠야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 사는 것이, 지금 살 양으로 재산, 돈, 옷 좋은 거, 집 좋은 거 전부 이런 거 허무맹랑하게 갖는 것이 급한 게 아닙니다.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는 그저 꾸러 가지 않고, 그저 굶지 않고, 옷 헐벗지 않고, 길가에서 자지 않으면 됩니다. 아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자기 몸통이 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져갈니까, 그거 쓰드라고 매일같이 세수하고 수염 깎고 모두 했

